

## — 신주대학교 도서관을 다녀와서 —

장환석 (경상대학교 도서관)

내가 몸담고 있는 경상대학교 도서관과 일본의 신주대학 도서관은 2011년 5월 직원 교류 및 학술자료 교환, 정보제공, 도서관 이용 등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덕분에 나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12박 13일의 일정으로 일본 신주대학 도서관에서 연수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주대학까지 갈 때에는 우리 대학교로 연수 받으러 온 하기와라씨와 함께 일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 연수기간 동안 숙소로 사용할 신주대학내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을 때에는 벌써 날이 어둑해져 있었고 도착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쉽게 잠이 들 수 있었다.

도착한 다음날 중앙 도서관 직원 분들과의 인사와 함께 시작된 연수는 나에게 색다른 경험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도서관을 보면 규모나 시설, 예산의 차이에 따라 운영방식이 틀리게 되며 거기서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화나 생활방식이 다른 일본의 도서관이 달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주대학도서관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설명할 때 모두 스스로 영어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부분이다. 본인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결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설명을 할 때 어려운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직원은 있어도 완전히 다른 직원에게 설명을 부탁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본의 대학 직원이 우리 도서관에 왔을 때 일본어를 잘하는 우리 도서관 선생님이 계속 동행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일본의 정서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유학생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현지 직원도 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식의 운영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신주대학 캠퍼스와 도서관은 규모 면에서 경상대학교에 비해 작았지만 학교현실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하면서 계속 노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 옥상에서는 태양열 집진판을 설치하여 태양열로 캠퍼스의 전력을 충당하였고 학생들도 에너지 절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도록 도서관 내부에 전력 발전량 및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5개의 캠퍼스가 있는 신주대학에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시스템



<도서관 옥상의 태양열 집진판>

을 사용하여 캠퍼스간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 연수 기간 중 도서관 마스크트 선정과 관련하여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운이 좋게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서 직접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 대학교에 도입되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편리한 시스템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도서관 옥상의 태양열 집진판>

연수기간에 열람실에서 신주대학의 학생들이 전공관련 전시회를 가졌는데 유사한 행사는 로비에서 진행하는 우리 대학교의 도서관과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물론 전시나 행사를 가질만한 공간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열람실 내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학생들이 크게 거부할 하지 않는 부분이 신기하기도 했다. 열람실은 조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나에게서는 색다른 장면이었다.

신주대학 도서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도서관 관련 활동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도서관의 주도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었다. 간단하게는 열람실 책상을 학생들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도록 책상에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둔다던지 북헌팅 프로그램과 같이 도서관 사서가 학생들을 인솔하고 대형 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일정 금액 이내에서 원하는 책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것들은 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도서관 관련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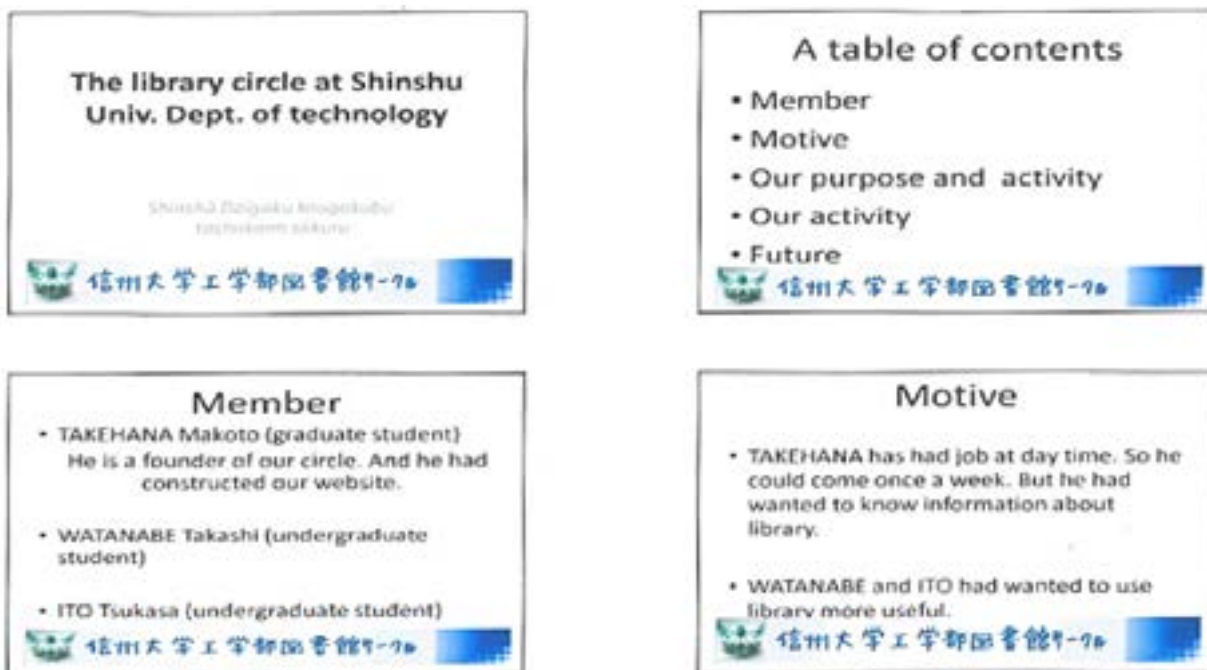


<북헌팅 (Book Hunting) 프로그램>

헌팅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책과 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활동이라고 생각되었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 4 명과 나머지 학부 대학원생 4 명을 학습지도 상담원으로 선발하여 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는 학부생들에게 도서관 이용이나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대해 기초 교육을 하게 만들었는데 요일별로 이공계와 나머지 학부를 구분하여 신청하게 하여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검색 및 도서관 이용에 대해 더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았다.

학생들의 자발적 도서관 관련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학부 캠퍼스의 도서관 서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서클은 학생 2 명 및 일반인 1 명 (졸업생) 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도서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도서관 서클에서는 스스로 만든 서클 홈페이지 및 SNS 를 통한 도서관 홍보, 도서관 행사 안내와 같이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도서관 행사시 포스터 제작이나 전시물 진열까지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월 도서관 사서와의 정기 모임을 통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알려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도서관 서클 프리젠테이션 자료 (서클 회원 발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서클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클을 위한 전시공간이나 모임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서클회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도서관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는데 도서관과 학생들 간의 유대관계가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도서관에서 나를 위해 준비한 환송회를 마지막으로 신주대학에서의 단기 연수는 마무리 되었다. 앞서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속해있는 곳에서 벗어나면 어디서든지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찾아질 것이다. 나에게서는 그것이 이번에는 신주대학 도서관이었으며 문화나 생활방식이 우리와 다른 만큼 장단점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도 신주대학의 도서관 서비스를 무

조건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도서관이 발전하는 길일 것이다.

짧은 지면으로 인해 모두 적을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 관장 및 직원 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 덕분이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무리 짓는다.